

'캠프 말형' 이창진 "신인 같은 마음으로 훈련"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의 마무리캠프 '말형' 이창진 꾸준함을 위한 답을 찾아서 돌아온다. 이창진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되고 있는 KIA 마무리캠프의 최고참이다. '말형'이지만 이창진은 신인 같은 마음으로 부지런히 뛰었다. 이창진은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제일 행인데 후배들이 보고 있으니까 대충하면 따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충대충 할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다. 올 시즌을 돌아보면 아쉬움은 있지만 배움을 얻었던 시간이기도 했다. 이창진은 지난해 111경기에 나와 404타석을 소화하면서 0.301의 타율을 기록했다. 7개의 홈런을 날리면서 48타점도 올렸다. 올 시즌에는 104경기에 나와 284타석을 소화하면서 0.270의 타율을 기록했다. 홈런은 4개, 타점은 29점. 이창진은 "힘들었던 적도 있었고 재미있기도 했

대타 출전하며 투수 공략법 배워 후배들 앞 행동 하나하나 최선 한달간 변화된 타격폼으로 훈련 내년 시즌 꾸준함 보여줄 것

던 시즌이다. 올 시즌 대타로 많이 나왔다. 대타로 나가면서 어떻게 투수를 상대하는지 배울 수 있던 한 해였다"며 "대타로 나갈 때 경기 상황도 봐야 하고, 중요한 상황에 대타로 나가는 거니까 결과가 안 나오면 팀에게도 그렇고 내 스스로에게도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하면서 했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올 시즌 아쉬움을 안고 또 말형의 책임감을 가지고 보면 캠프에서 이창진은 '타격폼'을 키워드로 삼았다. 이창진에게 주어진 '꾸준함'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한 열쇠였다. 이창진은 매년 폭발적인 활약으로 눈길을 끌면서도 부상과 슬럼프 등을 겪으면서 '꾸준함'에 대한 고민을 남겼다. 이창진은 "운동선수라면 부상은 항상 따라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은퇴할 때까지 숙제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최대한 재발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해야겠다"며 "시즌 끝날 때쯤에 폼을 한번 교정했다. 내

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 폼으로 다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캠프에 왔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동안 다리를 들지 않고 찍어서 쳤다면 다리를 끌었다가 치는 그런 타격을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보고 있다. 좋을 때 좋은데 안 좋을 때 그 흐름이 길어졌다. 한 가지 폼으로 1년을 보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최형우 형이라든가 잘 치는 선수들 보니까 한 가지 폼으로 1년을 쫓아가지는 않았다. 나름 제2의 자세가 있어서 준비를 해보아겠다고 생각했다. 안 좋은 기간은 최대한 줄여야 하니까 꾸준히 새 폼을 해보면서 체크하는 캠프였다"고 이야기했다. 강렬한 이창진의 모습을 유지하되 슬럼프 기간은 최소화해 외야에서 경쟁력을 더하겠다는 구상. 28일 캠프 종료로 앞둔 이창진은 '계획대로' 된 캠프였다고 밝혔다. 이창진은 "캠프에서 한 달 동안 변화된 타격폼으로 훈련을 했다. 손조롭게 잘 진행됐다. 나중에 스프링캠프 가서 시합을 하해보면 또 단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 생기는 단점 잘 보완해서 내년 시즌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다"며 "내년 시즌 팀이 올 시즌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것 같다. 부상만 없다고 하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이 기대된다"고 2024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마무리캠프 '말형' 이창진이 일본 오키나와 킨 구장 실내 연습장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다.

홀란, EPL 역대 최소 경기 50호골

48경기 만에 50득점... 맨시티는 리버풀과 1-1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간판 공격수 엘링 홀란이 EPL 역대 최소 경기 50호골을 터뜨렸다. 맨시티는 25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13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버풀과 1-1로 비겼다. 맨시티의 간판 공격수 홀란은 전반 27분 골대 정면 페널티 박스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대 구석을 찌르는 선제골로 팀에 리드를 안겼다. 리버풀은 후반 35분 트렌트 알렉산더-아널드의 동점골로 승점 1을 가져갔다. 지난 시즌 맨시티에 입단해 잉글랜드 무대에 입성한 홀란은 EPL 48경기 만에 50득점을 하는 이 부문 역대 최소 경기 신기록을 썼다. 중전 기록은 앤디 콜(당시 뉴캐슬)의 65경기인데, 홀란은 이 기록을 무려 17경기나 앞당겼다. EPL에 데뷔한 지난 시즌 35경기에 출전한 홀란은 EPL 역대 한 시즌 최다 득점인 36골을 폭발해 득점왕을 차지했고, 올 시즌 역시 13경기에서 14골을 기록해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다. 10골을 넣은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가 2위, 손흥민(토트넘)과 제러드 보언(웨스트햄)이 8골로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홀란은 50골 중 34골(68%)을 왼발로 넣어 '무적의 왼발'을 뽐냈다. 나머지 16골 중 10골(20%)은 머리로, 6골(12%)은 오른발로 넣었다. 홀란은 EPL에서 40골 이상을 넣은 선수 중 매 득점까지 걸리는 시간도 역대 가장 짧다. 홀란은 직전 경기까지 49골을 넣는 동안 77.55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 25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EP13라운드 리버풀과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마다 골을 넣었다. 2위는 세르히오 아케로(은퇴)의 107.92분(184골), 3위는 티에리 앙리(은퇴)의 121.79분(175골)이다. 현역 선수 중에는 올 시즌 독일 무대로 떠난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이 126.47분(213골)마다 골망을 흔들며 전체 4위에 올라 있다. 홀란의 다음 목표는 EPL 역대 최소 경기 100호골이다. 현재 1위는 '전설' 앨런 시어어(은퇴)의 124경기 100골이다. 2위는 141경기 만에 100골을 달성한 케인이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 이화숙, 파리 패럴림픽 출전 '청신호'

패럴림픽 쿼터대회 개인전 은메달 내년 국내 최종선발전만 남아

장애인양궁 이화숙(광주시청)이 2024 파리 패럴림픽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한국 여자장애인양궁 '1인자' 이화숙이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파리 패럴림픽 쿼터대회 리커브 오픈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이화숙의 은메달로 한국은 파리 패럴림픽 개인전 출전권을 확보했다. 대회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 7명 중 유일하게 메달을 딴 이화숙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최종선발전 통과하면 자신이 획득한 출전권으로 파리로 간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장애인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이화숙은 한국 장애인양궁의 강자다. 2004 아테네 패럴림픽 단체전 동메달,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개인전 금메달·단체전 은메달, 2012 런던 패럴림픽 양궁에서는 은메달까지 따냈다. 한국장애인 양궁의 대표선수였던 그는 2017년 4월 사격으로 종목을 전환해 경기도와 서울시 장애인사격연맹 소속으로 총 6년간 사격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건 결국 양궁임을 깨달았다. 그가 장애인양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이화숙이 파리 패럴림픽 쿼터대회 리커브오픈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제공) 된 데는 57세라는 나이도 영향을 미쳤다. 선수생활의 마무리를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인 양궁장에서

서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화숙은 올해 초 다시 활을 잡고 서울에서 홀로 훈련을 시작했다. 하지만 훈련 여건이 좋지 못했다. 장애인양궁 훈련에 적합한 양궁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그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활공장에서 훈련을 했다. 훈련용 장소가 아닌 활을 테스트하는 공간이자 주거지에서 왕복 9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겪던 그에게 국제양궁장이 있는 광주는 좋은 선택지가 됐다. 이화숙은 지난 9월부터 광주시청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이화숙은 "오랜 공백으로 아직 부족함을 많이 느끼지만, 안형승 감독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받아 마지막 관문인 최종선발전 넘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 광주 장애인양궁을 빛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화숙의 복귀로 그동안 선수 부족으로 흔들리던 한국 장애인양궁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안형승 광주시청 장애인양궁팀 감독은 "사실 장애인 양궁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다. 작년까지는 메달을 따올 국가대표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화숙 선수가 양궁으로 다시 돌아와줘서 기쁘다"며 "훈련에 매진해서 파리 패럴림픽에서 큰 성과를 거두겠다"고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북한 역도, 12월 그랑프리 2차 대회 출전 신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제 무대에 복귀한 북한 역도가 12월에 열리는 국제역도연맹(IWF) 그랑프리 2차 대회 출전 의사를 밝혔다. IWF가 최근 공개한 IWF 그랑프리 2차 대회 예비 엔트리에 북한 선수 16명의 이름이 보인다. 대부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선수다. 남자 81kg급 리정송, 여자 49kg급 리성규, 55kg급 강현경, 59kg급 김일경, 64kg급 림은심, 71kg급 송국향 등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6명은 모두 IWF 그랑프리 2차 대회 출전 신청을 했다.

송국향은 항저우에서는 76kg급에 출전해 우승했는데, IWF 그랑프리 2차 대회에는 71kg급 예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IWF 그랑프리 2차 대회는 12월 4~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다. 한국에서는 남자 61kg급 신록, 89kg급 유동주, 여자 59kg급 한지안, 71kg급 문민희 4명이 출전한다. 2019년 파타야 세계선수권 이후 북한 역도는 국제 대회에 오랫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북한은 코로나19의 자국 내 확산 방지를 이유로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 불참해 국제 올림픽위원회(IOC)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끝난 뒤 북한 역도는 6월 쿠바 아바나 그랑프리 1차 대회, 9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세계선수권에 출전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선수들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베일에 싸여 있던 북한 역도는 9~10월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4명이 출전해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를 수확하며 개최국 중국(금 5, 은 3, 동 1개)을 압도했다. 북한 역도 선수들은 약 4년 만에 도핑 테스트도 받았다. 아직 북한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서울의 봄, 더 마블스
2관	서울의 봄
3관	더 마블스, 30일
4관	서울의 봄, 스노우 폭스: 셀매개가 될 거야!
5관	프레디의 피자가게
6관	서울의 봄
9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아워 프렌드
7관 씨네클러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허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본 투 플라이
8관 씨네클러	허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소년들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GAC 기획공연
손민수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